여섯 의병장이 나온 佐尹公派 司正, 竹林公 門中〈2〉

權 伍 信 (佐尹公派 35세)
(종보편집위원장, 로타리코리아고문)

九思齋 權復始

九思齋 權復始(1556~1636)公 역시 司正공의 伯兄이신데 단종 복위가 실패로 끝나자 스스로 자진하신 참의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의 5세손이시자 오모재(五慕齋)公과는 4촌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며칠 만에 경주(慶州)성까지 무너지고 당시 경주부윤이 가족들을 데리고 죽장에 숨어버린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이르자 향중(鄕中)의 의사들과 분연히 창의, 경주 월성 동쪽 남산 산허리에 진을 치고 북상하는 왜구의 식량(食糧) 보급로(補給路)를 끊어 왜구의 사기를 단숨에 꺽었다.

그해 9월 公은 이장손(李長孫)이 발견(發見)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앞세운 경주읍성 탈환전(奪還戰) 때는 판관(判官) 박의장과 작전계획(作戰計劃)을 세우고는 정무공 최진립(경주최씨종가) 장군과 더불어 싸움에 나섰으며 저 유명한 형산강(兄山江)변 금장대 전투를 성공시키는 주역을 맡으셨다.

선조 30년 휴전협정(休戰協定)이 결렬되자 왜장 기요마사 등이 14만 명이란 대군을 이끌고 재침략(侵略)한 정유재란(1597년)때는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軍과 함께 화왕산에서 적을 막았다.

임란사에 남을 전공으로 '화왕동고'에도 이름을 올렸다.

의주에 피신해 있었던 선조로부터 첨정(僉正)을 제수 받았으나 공 역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던 가문(家門)의 정신을 이어 나갔다. 선조 31년 경주 강동을 중심으로 송나라 여씨향약을 바탕으로 한 "상동계(上洞契)"를 결성, 민중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이끌었다고 한다.

인조 16년(1638) 공이 정들여 지킨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서당과 사당을 건립했으나 철종 13년(1862) 화재로 묘우(廟宇)와 고귀(高貴)한 서지(書誌)가 불타 버렸다.

1923년 구사재정사(九思齋精舍)를 새로 지어서 후손들의 배움터로 활용하다가 1960년 현재 장소로 이전 건립했다.

梅窩 權士諤

梅窩 權士諤 (1566~1612)역시 司正공의 5세손으로 병조, 예조 정랑과 합천군수를 지내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이 백부여서 어릴 적부터 백부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공은 임진년(1592) 7월 동래성이 무너지고 부윤이 죽장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분연히 일어나 영천 추성에 진을 치고 탈환을 노리고 있었던 의병장 권응수에게 달려갔었다. 당시 나이는 37세.

손시. 최진립 장군과 좌우로 호각세를 이룬 공은 성을 공격, 왜적들의 주둔(駐屯)지에 불을 지르고 당시 잡혀 있었던 백성 1,900명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왜구와 싸울 때마다 선봉에서 날카로운 공격형세에 당할 왜구가 없었다고 호계사기문(虎溪祠 記文)에 적혀있다.

언양 화왕산 전투에서 곽재우 의병군의 좌현을 맡아서도 큰 공을 세워 훗날 사천현감을 제수 받는 공적에 기록 됐다.

밀양에서 펼친 야간 작전의 성공으로 선조 27년(1594)엔 병절교위훈련주부(秉節校尉訓練主簿)에, 그 다음해엔 려절교위훈련판관(勵節校尉訓練判官)을, 형산강 전투 대첩(大捷)을 이룬 해에 사천현감(1598)을 제수 받았다.

선조 37년 3등 공신으로 녹훈되고 광해군 원년(1609)에 울진 현령으로 임명하는 교지를 받았으나 공 역시 사직하고 안강 호계동에 침류정(枕流亭)을 짓고 시서(詩書)를 벗하면서 여생을 보낸 당대 최고의 고결(高潔)한 사대부(士大夫)이셨다. 철종 9년(1858)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직되셨다.

松軒 權汝精

송헌(松軒) 권여정(權汝精 1567~1623) 공 역시 사정공의 현손이시다.

경주성 함락소식을 향리 연일에 들은 공은 김현용 형제들과 의병을 모은 그 즉시 경주성으로 달려가 비격진천뢰를 앞세운 의병들과 합류, 경주성 복성전에 참전해서 왜구의 목을 숱하게 베었다고 한다.

그해 7월 경상도(慶尙道)에서 주로 활동하는 의병(義兵)장들이 결연히 나선 문천회맹에 참가, 군심을 크게 높인 공은 친척 사악이 거느린 의병과 손시(孫時) 최진립(崔震立)군과 함께 영천성 탈환(奪還)작전에 나선 권응수(權應銖)를 도왔다.

선조 26년(임란 다음해) 2월은 유독 추운 날이 많았던 겨울이었으나 김현용(金見龍). 이대임(李大任)의병장과 함께 문경으로 이동, 당교전투에서 북상(北上)하는 왜구를 물리쳤으며 돌아오는 길엔 좌병사(左兵使) 고언백(高彦伯)을 도와 안강에 침투한 왜적(倭敵)을 부산으로 쫓아냈다.

선조 29년 팔공산(八公山) 회맹(會盟)에, 그 다음해 7월엔 화왕산(火旺山)으로 진군(進軍) 해서는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진에서 회맹(會盟)을 맺고 울산(12월) 도산성(島山城)전투에서 조명(朝明) 연합군(聯合軍)을 도와 조총으로 무장, 필사의 방어전을 펼치는 왜구를 물리치는 등 임란 의병사에 기리 남을 전공을 남겨 섰다.

여정(汝精)공 역시 전란이 끝나자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향리로 돌아와서는 자호(自號)를 송헌(松軒)이라 하고 송파상(松坡上)에 도남서당(圖南書堂)을 열어 평생(平生)을 대쪽 같은 절의(節義) 정신으로 후학(後學)을 양성하면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記錄)되었다.

실제로 포항시 대송면엔 지금도 도동이라는 지명을 가진 동네가 존재한다.

도학(道學)에 도통하신 선비가 사는 마을이라 해서 임란이후 자연스럽게 이름이 지어 졌는데 그 선비가 여정(汝精)공이시다.

만년에 선조로부터 참봉을 제수 받았다. (松軒實記)

여정(汝精)공의 선친(先親)이신 순천(順天)公도 한 시대를 뛰어넘는 학덕(學德)을 갖추신 선비이시었다. 포항지방의 대표적(代表的) 서원(書院)이자 향중서원인 오천서원(烏川書院)을 답사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배향되신 분은 포은(圃隱) 선생인데 이 서원의 실제 주인은 안동(安東) 권씨(權氏)처럼 느껴진다. 포항 오천서원(烏川書院) 건립 주역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순천(順天) 공이 맡으셨기 때문이시다.

그 인연은 단종(端宗)복위에 일생을 걸었던 입향조 사정(司正)공의 불의절의(不義節義) 정신과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圃隱)이 남긴 단심가(丹心歌)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통했기 때문이었다.

바닷가로 귀양지 천대받았던 연일 땅에 가풍(家風)이었던 불의절의 정신도 심고 조선 성리학(性理學)을 이 척박한 동쪽 땅에 남기려는 정신세계를 남기려는 조선 선비의 지조론을 지행(知行)하신 사대부(士大夫)이었기에 가능했다.

경주(慶州)일대가 북상하는 왜구의 길목이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었다.

이런 군사적(軍事的) 위험지역을 지킬 마다않고 의병장이 한 문중에서 여섯 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임란 기록을 보면 형제나 4촌이 활동한 기록(紀錄)은 볼 수 있으나 숙질과 종숙, 멀게는 10촌 안팎의 친족 여섯 명이 의병으로 나선 예는 조선(朝鮮)을 통 털어서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작전에서는 효과적(效果的)이었다.

지형지물 이용한 작전을 주로 폈었던 의병들의 특성상 신뢰도(信賴度)가 지극히 높고 손발이 잘 맞아 백전백승(百戰百勝)의 전투를 벌여 이름을 크게 떨쳤다. 더욱이 여섯 의병장들은 정유재란을 끝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정리되고 나라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내린 현감 군수 등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고 향리로 돌아와 후학(後學) 양성에 힘을 쏟았던 사실이 더 놀랍다.

경주 포항 일대에 살았던 안동권씨(安東權氏)들은 구원투수 역을 잘 맡았다.

공동체(共同體)가 어려울수록 전면에 나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을 잘 맡아서 가문과 나라를 빛낸 선조들이 유독 많았던 원인은 입향조 사정(司正 1410~1466)공과 죽림(竹林1403~1456))공 형제분의 불의절의 정신세계를 가풍(家風)으로 잘 간직했기 때문이다.

사정(司正 1410~1466)공과 죽림(竹林 1403~1456))공은 조선 6대 임금 단종(端宗 1452~1455)사화에 얽혀 한분은 스스로 자진하시고 한분은 장조카를 등에 업고 경상도 연일(延日)땅으로 유배를 오신 형제로서 참의 죽림공은 단종 문종 세종까지 세 임금을 섬긴 유신(遺臣)이었나 비극적으로 몰(沒)하신 단종의 이모부이시다.

〈끝〉

行列字 小考

聾岩 權 道 鉉(복야공파 35세)

옛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역 호족(豪族)마다 항렬자를 제정해서 쓰곤 하였다. 그래서 같은 파족 간에도 오행 항렬자를 쓰는 집안도 있고 십간순(十干順 : 甲乙丙丁…), 숫자순(數字順 : 一 二 三 四 五 六…)도 있으며 우리들은 거의 모든 집안들이 오행 항렬자를 쓰고 있었으나 21세 남강공(南崗公) 휘(諱) 상(常)의 후손문중은 심중대덕경세언인(心中大德經世彦人) 의 8자의 가훈을 항열자로 삼고 있다. (心(22) 中(23세) 大(24세).....34세의 대표적인 분이 이혁씨인데 經자의 항열이다 경자의 실糸자가 들어있는 彝자를 쓰는데 이자를 두가지 글자로쓴다. (彝와 彛 인데 중간 쌀미(米)자 옆자리에 分자는 아니고 糸자가 들어가야 된다고한다

오행은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이어서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가 있는 글자를 항렬자로 정하여 오대(五代) 마다 같은 변의 글자를 쓰곤 하였는데 추밀공파 어느 집안에서는 32世는 종(鍾=金), 33世는 수(洙=水), 34世는 식(植=木), 35世는 병(炳=火), 36世는 주(周=土), 37世는 현(鉉=金)을 쓰고있다.

복야공파(僕射公派) 서부 경남 일대에서는 16世(諱)執德(軍資監正)公係 32世 = 集(木) 0, 33世 = 0 煥(火), 0 熙(火, 34世 = 載(土)0, 35世 = 0 鉉(金)(翊鉉 鐵鉉) 36世 = 海(水)0 (海玉) 永(水)0,(泳吉 淳燦 淳永 등 삼수변 글자를) 37世 = 0 根(木)(瑀根 大根 이렇게들 쓰고 있으며 같은 복야공파에서도 판서공계(判書公係) 경북 영천 일대에서는 또 다른 오행 항렬자인 32世 = 0 淵, 33世 = 相 0,

34世 = 0 燮, 35世 = 圭 0, 36世 = 0 鐸을 쓰고 있으니까 혼돈(混沌)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들의 항렬자를 金, 水, 木, 火, 土, 의 오행(五行)을 써왔으나 각 문중마다 行列字가 다르고 통일이 되지 않아 세수(世數)를 잘 알 수가 없어서 1903년(광무 7)인 계묘년(癸卯年)에 대종회(大宗會)에서 일(一), 이(二), 삼(三), 사(四)…등 숫자로 항렬자를 아래와 같이 쓰기로 결정하였다.

대수	항렬자	예 비 자	대수	항렬자	예비자	대수	항렬자	예비자
31	丙(병)	大(대), 万(만), 友(우)	41	一(일)	百(백)	51	懿(의)	丞(승)
32	重(중)	宗(종), 仁(인), 武(무)	42	元(원)	完(완)	52	恒(항)	天(천)
33	泰(태)	春(춘), 龍(용), 正(정)	43	全(전)	長(장)	53	玉(옥)	三(삼)
34	寧(영)	憲(헌), 鐸(탁), 爵(작)	44	澤(택)	暑(서)	54	德(덕)	寰(환)
35	五(오)	肅(숙), 悟(오), 珸(오)	45	書(서)	梧(오)	55	肇(조)	衙(아)
36	赫(혁)	奇(기), 景(경), 英(영)	46	溟(명)	兗(연)	56	京(경)	琦(기)
37	純(순)	宅(택), 處(처), 虞(우)	47	七(칠)	虔(건)	57	世(세)	毫(호)
38	容(용)	俊(준), 說(설), 益(익)	48	駿(준)	兌(태)	58	八(팔)	佾(일)
39	九(구)	塾(숙), 軌(궤), 藝(예)	49	旭(욱)	究(구)	59	執(집)	紈(환)
40	升(승)	協(협), 士(사), 斗(두)	50	甲(갑)	南(남)	60	求(구)	年(연)

34세가 德자를 쓰는 집난도 있는것을 보았다.

막난집(莫難集)을 찾아라!

(권오설의 父 권술조 편저) 상·하 2권

정신문화의 수도 安東에서 삼한의 명문 權씨 문중의 자랑,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교육가, 농민운동가, 애국열사로 그 짧은 생애를 불꽃 처럼 살다간 막난(莫難) 권오설(權五卨 1897-1930) 선생의 생가 복원과 동상건립을 위한 운동을 하던중, 권씨종보 기사에 난마(難馬)라 오보(종보사 기자 權五澈) 하여 이에 대한 항의에 접하여 그 친족과 통화 하던중 그의 아들 권00님이 말한 내용은 30여년전 가일의 권00 선생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그 문집이 예천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만 해도 권오설 선생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권00 선생이 돌아가셔서 누구에게 있는 지 모른 다고 한다. 권00 선생의 자제분은 권00 선생이고 가일마을에 사신다고 하니 수소문하여 이 문집을 찾는다면 독립운동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蛇足: 막난(莫難)의 뜻

'막난구슬' 은 황색이며 동이(東夷)의 나라에서 난다. 목난(木難)이라고도 한다. 금시조 (金翅鳥 : Pheonix 인도 전설상의 새) 가 날개짓 하면 포말이 푸른 구슬로 나온다.

明나라 하완순(夏完淳)

《送客遊閩》 詩 : "南海風清藏瑰奇,火齊木難珊瑚枝

손님을 보내고 복건땅에서 놀자니, 남해바람은 맑고 기이한 것을 숨기고 있으니 화제와 **막난**과 산호 가지 같은 귀한 것들이라.

혹시 제보 하실분은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세요

간사 권옥희 010-4377-5465 · 연락 권오철 010-8346-8881〈권오설 선생 생가 복원 및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안동권씨 대종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동권씨 대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남·녀 노소 불문, 재능기부 등 수시로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하며 대종회 업무 적격자는 직원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종중 자원봉사 업무분야	
대내업무	대외업무
임원회비징수, 회계·경리 전산업무 문서작성,발송업무, 종보원고 수집, 편집 발송	종보발송, 광고모집,수금, 각종행사 취재·안내 건물관리(소방관리자격증 소지자)
일일 봉사자 소정의 봉사료 지급	

지원자 연락처: 이력서 : e-mail: andongkwonmun@daum.net 문의전화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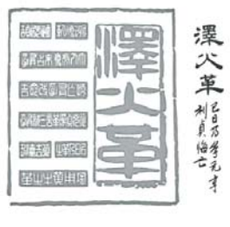
■ **이달의 괘**

택화 혁 (澤火 革)

權門易經文化學會

위는 못(澤)이고 아래는 불(火)이니 혁(革)은 '바꾸다' '혁신하다' '혁명'의 뜻이다. 연못아래 불이 있으니 물이 끓어 증발하여 큰 변화를 하므로 혁(革)이라 했다. 혁(革)은 '가죽'이라는 뜻으로 가죽의 털을 벗기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혁명의 革자로 차용하였다.

官鬼未土
父母酉金
兄弟亥水 世
兄弟亥水
官鬼丑土
子孫卯木 应



破舊立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려는 상으로서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필요한 것을 뜻한다.

鍊金成器, 잘못 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개혁은 믿음과 박력 그리고 결단성이 있어야 성공한다.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서는 안되므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사업은 매우 강한 운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전업을 해도 좋다. 종래의 방법을 바꾸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井道는 변혁을 이루지 않을 수 없으므로 革卦로 받는다고 하였다. 우물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썩고 더러워지므로 수시로 청소(개혁)를 하여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井道가 변혁을 이루어 革卦로 이어 나간다.

兌上離下이므로 못 속에 불이 있는 상이다. 水火는 상극이므로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말리면서 서로 변혁을 이루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따라서 물불의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睽가 되지만 지금은 불이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므로 상호간에 상극을 이루어 서로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革이라 한다.

또한 두 여자(위에 少女, 밑에 中女)가 한 집에 동거하지만 각자의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혁이라 한다.